

◆교회목표◆

신령한 예배
친국일꾼 양성
민족복음화
세계선교
지역사회 봉사

주관 중 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나라
(엢립서 1:21)

발행처: 대한예수교 총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552-8200

THE WEEKLY CHOONG 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김호은 편집국장: 조진권

파송! 농어촌전도대

주께서 부르신 보석 같은 영혼들을 찾아서

총 47개팀 600여명 오늘 찬양예배시 파송

계속되는 여름 성경학교 및 수련회

대학부, 장년2부, 호산나찬양대 잘 마쳐
이번 주에도 8개 부서에서 진행

대학부와 장년2부 그리고 호산나찬양대가 여름수련회를 치렀다. 대학부 수련회는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왕상 19:12)를 주제로 하여 지난 6일부터 10일까지 충남 당진군에 있는 대난지도 청소년수련원에서 4박 5일에 걸쳐 진행되었다. 특히 금번 수련회는 식사를 자체로 해결하는 등 캠프식으로 진행되어 대학부원들 사이에서 일명 '캉가목상수련회'로 불리기도 했다. 금번 수련회는 모든 것을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수련회인 만큼 무질서와 불평이 많지 않을 것이라는 상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부원 전원이 아름다운 헌신으로 잘 참여하여 은혜로운 수련회가 되었다는 자평이다. 6일과 7일 양일간에 걸쳐 수련 합동신학회에서 실시된 장년2부 수련회는 '하나님께 인도받은 신앙인'이라는 주제에 걸맞게 이승수 목사를 강사로 하여 하나님의 인도 및 인도의 결과에 대하여 집중하여 강의를 듣는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다(사진). 그리고 지난 9일 기도원에서는 호산나찬양대 수련회가 열려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가 되는 시간을 가졌다. 말씀을 담은 조문찬 목사는 뜻기의 나옴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에 대하여 말씀을 증거했다. 한편 이번 주에는 유·초·소년부를 비롯하여 청년1부와 장년 1·3부, 사령부, 영예배교육부 등 총 8개 부서에서 성경학교 및 수련회를 가진다. 흥왕한 말씀과 회개와 감사와 절단의 은혜가 넘치는 수련회를 위한 성도들의 중보가 절실하다.

군전도회

ROTC 장교후보생 전도집회
오늘 오후 문무대서

군전도회는 오늘 오후 3시 문무대에서 ROTC 장교후보생들을 대상으로 전도집회를 실시했다. 3, 4학년생들이 모인 2천여명의 후보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이 전도집회의 강사는 정형준 목사이고, 할렐루야찬양대가 특별찬양을 부른다. 이 집회를 통해 예비장교들이 복음으로 초청되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가 요청된다.

단기선교 수단팀

10일 오전 무사 귀국

지난달 27일에 출국했던 단기선교 수단팀이 14일간의 선교 일정을 모두 마치고 지난 10일 오전에 귀국했다. 수단팀은 지난 28일 수단의 수도 카르툼에 도착한 이후로 줄곧 시내 및 외곽 마을 및 난민촌 등을 돌면서 가정 방문, 전도 활동 등으로 바쁜 일정을 보냈다. 수단팀 선교 보고는 7월 26일자 주간총회에서 개제될 예정이다.

성경학교 교사를 모집합니다

- 춘천소년원 여름성경학교 -

교정전도회에서는 교도소 전도사업의 일환으로 매년 여름과 겨울방학기간을 이용하여 춘천소년원에서 개제된 성경학교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학교의 원활한 실시를 위해 매회 30-40여명의 교사들을 필요로 합니다. 이에 따라 '98 여름춘천소년원 성경학교에서 섬기실 우리교회 대학부와 청년부의 젊은 인력과 특수지역 전도와 교육에 관심이 있는 중고등부 교사들을 아래와 같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1. 기간: 1998. 8. 10 - 14일(4박 5일)
2. 장소: 신촌중학교(춘천소년원)
3. 강사: 이승학 목사, 박양덕 전도사
4. 참석예상인원:
 - 소년원생 약 350-400명
 - 지도직원 65명
 - 춘천교회 성경전도회원 및 자원봉사 교사 40명
5. 문의: 교정전도회(본당 103호, 구내전화 207번)
 - 박양덕 전도사(565-3723)

지난 두 주에 걸쳐 실시된 농어촌전도대원 훈련 및 기도회

마음정소를 돕는 등 사랑의 손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대도 있다. 또한 마음잔치를 통해 마을 주민들을 현 지교회와 연결시킨 계획도 가지고 있다. 특히 마을의 미래를 책임질 중고등학생들을 주요 전도대상자로 삼고 기도하고 있는 전도대도 있다. 그밖에 군부대를 방문하는 전도대도 있다. 전도위원회에서는 전도대들을 위해 지난 두 주간에 걸쳐서 훈련 및 전제기도회를 실시한 바 있으며, 각 전도대별로 일백만원의 진행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전도위원회는 각 전도대가 숙지해야 할 지침안을 마련하여 교육하고 있다. 이 지침안에는 전도의 핵심이 성령의 능력과 인도라는 사실을 명심하면서 기도에 전력해야 할 것과, 특히 파시적인 태도들을 일체 배제하고 헌지교회의 중심이 되어 지속적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아끼지 말 것,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전도활동이 되도록 힘들 것 등 구체적인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춘현의 성도들은 단기선교팀들을 포함하여 농어촌전도대의 사역을 위하여 뜨거운 기도로 동역하는 일을 계속해야 하겠다.

해외입양 본교회방문단

기쁨의 악수 나누고 돌아감



지난 4일부터 5일까지 1박 2일에 걸쳐 우리교회와 초청가정들을 방문했던 해외입양 모국방문단이 교회에 예배와 즐거운 교제의 시간을 잘 마치고 지난 8일 미국으로 돌아갔다. 사진은 주일 오후 메추라기홀에서 진행된 즐거운 교제 시간.



김 창 인 목사

하나님께서 베푸신 잔치

(이사야 25:6-12)

“믿음으로 참고 기다리는 자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의 잔치를 베푸실 때
거기에 참여하는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배워야 합니다.”

본 문에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천국 잔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구원받은 자는 천국잔치에 참여하여 영원히 기뻐할 것이나 그렇지 못한 자는 진도에서 울부짖을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연회를 베푸시리니”(6절) 하나님께서 잔치를 베푸신다는 말씀인데 대단히 귀한 일입니다. 개인이 베푸는 잔치나 교회가 마련하는 잔치나 나라가 주관하는 잔치는 다 귀하고 즐거운 것들입니다. 그러나 잔치의 결과가 좋아야 더욱 귀한 것입니다.

잔치에 대하여 성경에 나와 있는 몇 곳을 살펴 보겠습니다. 첫째, 구약에 벨사살 왕이 베푼 잔치가 있습니다(단 5:1-3). 당시 대단한 권력을 지닌 벨사살 왕이 고관대각들을 공평로 초대하여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이 잔치에서 사람들은 우상 앞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쓰던 그릇들을 가져다가 술을 부어 마시고 자기들이 섬기는 귀신들의 이름을 찬양했습니다. 더구나 나라가 전쟁을 하는 때에 총력을 기울일 생각은 안하고 문제가 없다면서 향락에 빠졌습니다. 한참 잔치 분위기가 무르익었는데 하나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선언이 떨어졌습니다. 그날 밤 벨사살 왕은 죽음을 당하고 바벨론은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둘째, 신약에 헤롯 왕이 자신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베푼 잔치가 있습니다(마 6:21-29). 그런데 이 잔치에서 세례 요한을 죽이는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무서운 죄로 말미암아 얼마 안가서 헤롯 왕의 가문은 전부 망했습니다.

셋째, 예수님께서 베푸신 잔치가 있습니다(마 14:13-21). 예수님께서는 뱃세 다 광야에서 한 아이의 점심값만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아주 초라한 잔치를 베푸셨습니다. 그러나 이 잔치는 배고픈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려는 사랑의 잔치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잔치였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잔치에 대하여 생각하겠습니다.

1. 잔치의 주인

이 잔치의 주인은 천지를 창조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2. 잔치의 장소

하나님이 베푸신 잔치의 장소는 ‘이산’입니다. 즉 하나님이 복주시는 동산으로써 시온산, 하나님의 성전인 예루살렘

혹은 하늘나라일 수도 있습니다.

3. 잔치의 음식

“... 곧 골짜기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6절)
이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릴 찬란한 기쁨을 의미합니다. 교회는 하늘나라의 신령하고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어야 합니다.

4. 잔치의 초청 대상자

이 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은 구속 받은 성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피로 속죄함을 받고 구원된 자의 애송하여 바로 살기를 원하는 성도들을 잔치에 초청합니다. ‘만민’이라고 하였으니 민족이나 인종의 구별이 없습니다. 다만 인간적으로 예쁘고 돈 많고 지식 있고 권세 높은 사람이 아니라 고만을 버리고 다른 사람을 의지하려는 어려서든 생각을 버리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만 믿고 받은 바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이 청함을 입습니다.

5. 잔치의 목적

첫째,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복을 주시려는 목적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원수되었던 담을 허시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영원히 사는 복을 주시려고 잔치를 베푸십니다.

둘째, 사랑끼리의 싸움을 없애고 화목하게 하려는 목적입니다. 이 땅에는 까닭없이 싸우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의인과 악자를 괴롭히려고 싸움을 일으키는 자들도 많습니다. 땅에는 싸움이 끝날 때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님이 잔치를 베푸신다면 인간들의 싸움이 끝이 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싸움을 끝나게 하시려고 하늘나라의 잔치를 베푸십니다.

셋째, 근신과 죄악과 질병 문제를 해결하여 평안을 주시려는 목적입니다. 넷째, 슬픔의 눈물을 씻어 주시고 기쁨을 채워 주시려는 목적입니다. 다섯째, 실수의 부끄러움을 없애고 성공의 영광을 주시려는 목적입니다.

여섯째, 사망이 되지 않는 영생을 주시려는 목적입니다.

6. 잔치의 결과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한 자와 참여하지 못한 자의 결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1)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한 사람의 결과는 어떠합니까(7-9절)

① 무지와 과오의 흑암이 사라지고 영생을 얻습니다.

“... 모든 민족의 그 가리워진 면막과 열방의 그 덮인 휘장을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7, 8절)

‘면막’은 가리개를 말합니다. 삶과 죽음, 현재와 내세에 대하여 편견을 갖도록 하고 영원에 대하여 회피하게 보게 했던(고전 13:12, 고후 3:15) 모든 장애물들을 벗겨 주십니다. 또한 사망을 제거하시어 사망과 상관이 없는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② 눈물과 수치가 제거됩니다.

“...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각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8절)

죄가 있는 곳에는 슬픔의 눈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죄가 없는 천국에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계 21:4)이 없습니다. 하나님님이 수치스러운 일들을 전부 제거하여 주시므로 부끄러움도 얼굴을 가리고 사는 일은 사라지게 됩니다.

③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합니다.

“그 날에 ... 우리는 그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9절)
하나님은 구원을 시작하신 분이실 뿐 아니라 완성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호와를 기리시면서 모든 고통과 고통과 고통과 고통을 면하고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날이 옵니다.

(2)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의 결과는 어떠합니까(10-12절)

본문에 보면 도망과 같이 된다고 하

고 있습니다.

① 도망은 어떤 나라일까요?

첫째로, 도망은 음란한 민족입니다. 도망 족속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 고모라에서 멸망을 면하고 도망치나와서 소알에 이르러 골에서 피난살이 할 때에 큰 딸이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 취하게 한 후 그 사이에서 낳은 아들의 후손입니다. 그러므로 도망은 음란의 씨입니다. 이리하여 도망은 조상에서부터 음란하였습니다. 둘째로, 도망은 우상을 숭배하는 족속입니다. 이들은 불우상을 섬겼는데 구리로 만든 우상을 달구어 그 우상의 탈 위에 아기를 올려 놓고 태워 죽이면서 복을 빌었습니다. 셋째로, 도망은 하나님의 백성을

미워하는 족속입니다. 이처럼 도망 족속에게는 유체의 음란, 우상을 섬기는 영적 음란, 이유없이 의인을 미워하는 악한 죄가 있었습니다.

② 도망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 나타나시리니 도망이 거름속의 초개의 밭합같이 자기 지쳐서 밭힐 것인즉 ...”(10-12절)

도망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거름속의 초개처럼 밭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질 때에 악한 자들이 자신들의 죄악의 구덩이 속에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발에 밟힌다는 말입니다. 게다가 이들이 그 속에서 살아 보려고 손을 뻗었지만 하나님님이 그것마저도 눌러버려 완전히 멸망당한다는 말씀입니다.

7.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배울 교훈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님이 허락하시는 잔치를 베풀고 또한 그 결과가 좋은 잔치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결과가 나쁜 잔치라면 차라리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든지 잔치의 결과를 생각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교회와 사람들에게는 덕과 유익이 되는 잔치만 해야 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는 도망의 무리에 섞여 지옥에 간다는 사실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난 죄는 회개하고, 이제부터는 사람 노릇을 바로 하며, 목사, 장로, 권사, 집사라는 간권을 내세워 뽐내지 말고, 하나님께 인정받은 신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뿐만 아니라 하늘 잔치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로, 믿음으로 참고 기다리는 자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의 잔치를 베푸실 때 거기에 참여하는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배워야 합니다. 천국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는 행을 하지 못할 만큼 비참해졌으니 도망처럼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유체의 음란과 우상을 섬기는 영적 음란과 의인을 괴롭히는 죄를 범하다가 도망처럼 멸망을 당하는 자가 되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므로 하늘 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



김성관 목사

큰 곡성의 밤

(출애굽기 11:1-10)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않으리니
여호와와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였나니”

능력 대결

본문은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신 마지막 재앙을 보여 줍니다. 열번째 마지막 재앙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 권위와 진정성을 드러내시고 자기 백성을 구하시려고 내리셨던 나머지 아홉 가지 재앙은 자연적인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초자연적인 재앙입니다.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결정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재앙들이 내려지는 동안 하나님과 바로 사이에서는 능력 대결이 계속되었습니다.

당시 애굽은 이스라엘을 지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통제 아래 노예로 부림을 받았습니다. 목동 모세와 함께 했던 아론 역시 노예였습니다. 바로 왕과 그의 신하들이 애굽 신들의 능력을 대표했다면, 모세와 아론은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대변했던 것입니다. 세상적으로는 참으로 미천한 두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권세 있는 자들 앞에 선 것입니다. 이에 따라 바로와 그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의 어찌구무 없는 요구를 비웃었습니다.

대단한 권세자에 정면으로 대적하는 평범한 이 두 사람의 힘겨운 싸움을 생각해 보십시오. 평범한 두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한 나라의 대항쟁에게 오랫동안 포로였던 수많은 사람들을 풀어 주라는 요구를 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하여 대항쟁은 그 두 사람에게 인해 포로들에게 더욱 고된 일을 시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를 압도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재앙이 내려질 때마다 우리는 자기 백성을 자유롭게 하려는 하나님의 구속의 능력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재앙은 왕의 능력을 압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권능을 나타내실 때는 그분의 궁극적인 계획을 위해 세밀히 준비하신 것이었습니다. 급기야 열번째 재앙, 그 죽음의 재앙은 결정적인 것이 되었습니다. 다른 아홉 가지 재앙은 하나님의 뜻을 완수하지 못했으나 마지막은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서 그분의 권능을 나타내시고 재앙을 내리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보낼 지라 그가 너희를 보낼 때에는 여기서 정녕 다 쫓아내리니”(1절).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재앙을 통해 자유를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첫번째 재앙부터 자유는 눈앞으로 다가와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첫번째, 두번째, 세번째 재앙까지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자들도 다섯번째, 여섯번째, 일곱번째를 지나 여덟번째, 아홉번째 결국 마지막 열번째 재앙까지 겪어야 하는 것이 의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재앙을 통하여 반드시 역사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호의를 얻게 하시는 약속

이제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온, 금패물을 이스라엘에게 주신다는 두번째 약속을 하십니다. “백성에게 말하여 남자로 각기 이웃들에게 온, 금패물을 구하라 하시니라”(2절). 온, 금패물을 소유한 사람들은 애굽에서도 권세 있는 지배계층이었습니다. 그들은 호화로운 생활을 하는 반면에 노예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왜 애굽인들이 이스라엘 노예들에게 호의를 베풀었을까요?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였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국에서 바로의 신하와 백성에게 심히 크게 뵈었다”(3절). 애굽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과 이적을 체험했습니다.

모세의 말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권세가 있어서 아무도 그것을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권세로 말미암아 애굽인들의 호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모세는 참으로 특별한 사람들이요 알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그의 권세는 더욱 성장하여서 심지어는 바로왕보다 더 막강해졌습니다.

대역전

이제 하나님의 계획은 명백하게 드러났습니다. 그것은 자유를 주신다는 약속과 부유하게 하신다는 약속의 성취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참으로 멋진 하나님입니다. 가장 중요한 열번째의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유를 허락

하였을 뿐 아니라 노예였던 그들을 부유하게 만들어 출애굽을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제 상황은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애굽인들은 자신들이 부르던 노예뿐 아니라 소유물까지 잃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믿을 만한 애굽의 ‘신’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유를 얻었고 부유하게 되었으며 지금까지 하나님께 감사하느라 고하고 있습니다.

큰 곡성의 밤

본문 11장의 핵심은 열번째 재앙을 선포하는 모세에게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4-8절). 그것은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기 위하여 친히 오신다는 것입니다. “애굽 가운데 처음 난 것은 뒤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뱃물 위에 있는 여종의 장자까지와 모든 생축의 처음 난 것이 죽을지라”(5절). 오직 순종함으로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자들만이 죽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 하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뿐이었습니다.

따라서 모든 애굽인들은 장자의 죽음을 보아야 했습니다. 심지어는 모든 생축의 처음 난 것들도 죽임을 당했습니다. 예외란 있을 수 없었습니다. 살아남을 길도 없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은 놀랍습니다! “애굽 전국에 전무후무한 큰 곡성이라”(6절). 그 밤에 그들은 돌이킬 수 없는 죄에 따른 재앙으로 통곡하였습니다. 아무런 위로도 찾을 수 없는 깊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광막한 마음은 자신들의 금은보화를 주문서까지도 이스라엘 백성을 기꺼이 보낼 수밖에 없도록 쪼여졌습니다.

보호받는 이스라엘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않으리니 여호와와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였나니”(7절). 이렇듯 없이 살고 있던 노예들이 처음으로 ‘이스라엘 자손’으로 불립니다. 바로는 이스라엘을 그저 히브리 노예로만 알고 있었

으나 이제 그는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로 재인식 합니다.

이스라엘은 절대적인 보호하심을 경험합니다. 세상의 권세는 궁극적으로 무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것에 대하여 능력을 행사합니다. 바로와 그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과 그분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할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많은 세월을 눈물로 보냈지만 이제는 웃을 수 있습니다. 반면 그동안 웃으며 지냈던 애굽인들은 이제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린 마음으로

모세는 다가를 사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큰 곡성의 날이 이르기 직전까지도 여전히 광막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에 분노와 혐오를 금치 못했습니다(9-10절). 하나님 앞에서 광막한 마음을 소유한 백성들은 망하고 어진 마음을 가진 백성은 구원을 얻습니다. 이는 성경 전체를 통하여 반복되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위대한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기 위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주장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의 믿음은 어진 마음을 만듭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사람들은 그분을 십자가에 못박으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이 스스로 무슨 일을 하든지 알지 못하는 고로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어진 마음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을 원하시니까? 마지막이 가까웠습니다. 심판의 밤이 가까울때 여러분은 웃을 것인가 혹은 울 것인가 결정하셔야 합니다. 천원의 모든 성도들은 회개하고 성령님의 간절한 용성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어진 마음을 주시는 유일한 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간구합니다.

또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부름받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도 필요합니다. 심판의 밤, 곡성의 밤을 피할 수 있는 어진 마음이 필요합니다. 아멘. ■

중국 선교 보고

중국에서 만난 영혼들

“예수 마이 니”(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전 형 준(목사, 청년2부·12교구·군전도회 지도)

우리에게 구체적인 계획이 전혀 없었다. 오로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기로 한 작은 믿음뿐이었다. 우리의 무기는 복음의 말씀뿐이었다.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했다.

팀원 중엔 출발 하루 전, 휴가 불가를 통보 받고 사표를 던지고 참가한 만호 형제, 신혼의 단꿈을 뒤로 한 채 몸을 실은 성수 형제를 비롯해, 침순이 작 님을 예에도 불구하고 의욕적으로 참가하신 송환창 장로님 등 든든한 믿음의 동행자들이 가득했다. “오! 하나님 전세계 인구의 1/4을 차지하는 중국을 우리에게 주소서” “복음의 씨앗을 심게 하소서”

두 가지 숙제

처음부터 우리 팀에게는 두 가지 숙제가 있었다. 한 가지는 중국어 성경을 과연 안전하게 중국 성도들에게 전달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였고, 나머지 한 가지는 노방전도를 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음은 물론 복음을 전하는 자체가 중국에서는 여러 장에 걸맞은 안고 있다는 점이었다.

중국은 3자원칙(자차·自治, 자양·自養, 자전·自傳)에 따라 외국인인 복음을 증거하는 행위를 법으로 금하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 선교사들 등록하여 목회할 수 없게 되어 있었고, 오로지 자국민만이 목회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팀은 초범적으로 종파대단 복음 증거를 위해 중국 땅을 밟은 것이었다. 어떻게 전할 것인가?

성령을 가지고 공감을 통과하다

김포공항을 출발한 후 1시간 35분만에 심양공항에 도착하였다. 가슴이 떨렸다. 왜냐하면 나의 가방 바닥과 옷 바스 속에에는 중국어 성경책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었다. 과연 공항 검색대를 무사히 통과할 수 있었는가 하는 두려움이 뇌리를 스쳤다. 그러나 그러한 생각은 잠시뿐, 담대한 마음이 생겼다. 중국 땅에도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당위성과 성령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것이란 확신이 찾아왔다. 나는 검색대를 무사히 통과했다. 타이프로 밀봉한 바스를 모두 뒤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된 것은 성경책이 그들의 눈을 어둡게 만들었기 때문이라. 그러나 문제가 발생하였다. 성수 형제가 지니고 있던 성경책이



▲ 하이난 교회 예배 후 성도들

들통나고 만 것이었다. 일행을 기다리며 나의 마음 속에는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했다. ‘여기서 추방되는 것은 아닐까? 그러나 이룩고 우리는 기도 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판단하고 로비에서 서서 다급하게 기도를 시작했다. 약 20여 분이 흘렀을 까. 기다리고 기다리던 성수 형제와 나머지 일행의 모습이 보였다.

성경책을 한 권도 빼앗기지 않고 돌려 받았다고 한다. 놀라운 일이었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께서 감사요원의 마음과 눈을 주장하신 것이었다.

개인 전도를 시작하며

남의 눈에 띄게 노방전도를 실시할 수 없었던 우리 팀은 2-3명이 한 조가 되어 흩어져 만나는 사람들에게 개인전도를 실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사실 이것도 위험한 일이었다. 그러나 우리 일행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기로 했다.

“나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마 10:16) “나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골 2:13) 매일 아침마다 목상했던 하나님이 말씀은 우리의 갈 길을 비쳐 주는 빛이 되었다. 그리고 저녁마다 간구하였던 우리의 기도는 두려움과 불안함을 극복하게 하는 능력이 되었다. 혹시 복음을 전하다가 고발되어 연행되는 일이 있을지라도 오히려 고난당함을 인하여 감사하리라고 다짐하였다.

중에서 만난 영혼들

우리 팀은 두 세 명씩 조를 짜서 흩어졌다. ‘어

디로 가서 소중한 영혼과 대화를 나눌까? 우리는 어느 대형 상점으로 들어가 찻집에서 아르바이트하는 중국본토

인 한쪽 여대생을 만났다. 그 학생과 길을 걸으며 대화를 시작했다. 그녀는 영문학 전공하는 여대생으로 학부때 영어학을 전공한 경험이 있는 나로서는 그녀와 공통 관심사가 있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금방 친밀해 질 수 있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할지라도 나를 고발하지 않을 사람이라는 신뢰감이 생겼다. 중국 선교사들의 선교 방법 중, 신뢰할 수 있는 친구가 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여도 고발하지 않는다는 이 방법이 생각났다. 그녀와 헤어지기 전

민도록 노력해보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주소와 전화번호, 이름을 적어 주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마음에 확신과 담담함을 주셨다. 이제는 만나는 여러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리라고 다시 한번 다짐했다. 그리고 사람을 구별하지 않고 상인, 유학생, 운전기사, 직장인, 전철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니 하우마”(안녕하세요) 인사를 하고 일반적인 대화를 나눈 후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도 여러 명 있었지만 결신하는 영혼들이 한 명, 두 명 늘어갈 때 감사와 감격이 힘싸이게 되었다. 특히 14년 이상 무신론 교육을 받아왔던 대학 출신 어느 직장인이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는 당사자뿐 아니라 우리 팀 모두가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성령님의 역사는 놀라웠다.

그 외에도 우리는 현지 한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북한에서 탈북한 어린이들이 모여있는 고아원에서도 예수님을 전했다. 성령의 예비하심으로 축석에서 이뤄진 사역들이었다.

두만강과 북한 무신 명을 바라보며

우리 일행은 두만강변으로 가서 북한 무신 땅을 바라보며 동일을 기원하는 기도를 드리는 기회를 가졌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굶주린 북한 땅에도 들어가 열매를 거두기를 소원하며 하나님께 눈물로 부르짖었다. 그곳에서, 신약성서가 북한으로 만반되어 지하교회 성도들에게 전달되는 모습도 보았고, 굶주린 북한인들이 밥식간을 이용해 두만강을 건너와 음식으로 배를 채우고 돌아간다는 소식도 접했다. 곡식을 심은 땅과 음식을 제공하는 집들도 보았다. 굶주려 탈북한 어린이들이 길에



▲ 고아원에 있는 탈북 어린이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 목사



▲ 한 소수민족 성인에게 개인전도를 하는 대원들

나는 그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 이번에는 중국어로 말했다. “예수님은 자매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구원은 값없이 주는 선물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윽고 그녀는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알고 있고, 성경을 본 적이 있지만 믿지는 않았다고 했다. 앞으로 예수님을

서 만난 육신의 양식과 함께 영의 양식인 복음을 전하기도 하였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해지도록 실패할 없이 진행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 전도의 미려한 방법으로 말이다. 이후에 성령의 도구로 사용되시는 복음 증거의 헌신자들이 계속 이어지길 소원한다.

단기선교. 단기행사(?)

7월 주제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해마다 여름이 되면 국내외로 단기 사역을 갑니다. 사역을 떠나는 청년들의 생각을 알아보았습니다.

여름 잔치를 준비하며

이 삼 열(7동기)

우리 천천교회 청년1부에서는 매년 여름이 다가오면 모든 청년 회원들이 하나가 되어 벌이게 되는 기도와 전도의 잔치가 있다. 이 잔치는 바로 여름 낙도 오지 전도 사역이다. 청년1부에서는 나에게 전도팀장 및 낙도 오지 전도팀장으로서 봉사하며 섬길 수 있도록 섬김의 자리를 허락해 주었다. 그래서 나는 감사함과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자이 하는 생각과 함께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가서는 안되며 오직 예수님만 나타내는 전도팀 사역이 되어야만 한다고 마음을 먹었다.

나는 여름 낙도 오지 사역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며 계획을 짜고 동역할 수 있는 사람을 나름대로 선정하고 모집을 하였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전도사역에 대해서 하나님 자신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 내가 같이 동역 하기에 적격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거절되었다. 나는 초조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우연치 않게도 동역할 수 있는 청년1부 지체들을 만나게 해 주시고 보내 주셨다. 그래서 그 지체들과 함께 매주 5부 예배가 끝난 후 교육관 507호에 모여 낙도 오지 전도 사역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이 무엇인가를 논구하면서 계획을 세워 나갔다.

이제는 직접 낙도와 오지에 가서 동역할 수 있는 팀원들을 모으는 것이 과제라 되었다. 이때 마음 속에 스며드는 회개가 있었다. IMF시대이고 취직도 어렵다고 하는데 과연 얼마나 많은 지체들이 전도 사역에 동참할까 하는 사역 자체에 대한 의구심이 들었다. 전도 사역을 준비하면서 작년에는 150명을 파송하였고 올해는 파송 인원 목표는 160명으로 정했지만 과연 청년부 회원들이 얼마나 갈까, 과연 잘될 수 있을까 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했다. 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하

면서 사람의 지혜에만 매달렸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여름 낙도 오지 전도 사역이 사람의 사역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임을 다시금 확인시켜 주셨고 우리가 낙도 오지 사역을 준비할 때 어떠한 자세로 임해야 하는가를 깨닫게 해주셨다. 우리 낙도 오지 전도 준비팀은 다시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 주실 것을 믿으면서 기도하며 각자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홍보와 모집을 하였다. 집회시간에 홍보를 하고 모집을 하면서 모집이 안될 때에는 실망하다가도 많은 사람들이 사역에 지원을 표해 오르면 마치 내가 한 것만양 교만한 마음이 살짝 스며들 때도 있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사람들을 통해서 정신을 차리게 해 주셨다.

우리 낙도 오지 준비팀들은 낙도 오지 현지와 연락을 취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였으며 전담 1개 지역, 경남 5개 지역 가운데 올해 처음으로 사역을 나가는 경남 2개 지역에는 그 사역지 팀장과 함께 직접 답사를 다녀오기도 했다.

이제 우리 청년1부는 앞으로 7월 20일부터 8월 15일까지 매주 2개팀씩 그리고 마지막 8월 12일부터 15일까지는 100여명이 출전 동안 상설리로 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역사를 목도할 것을 생각하니 가슴 벅찬 기대가 밀려온다. 우리의 손과 발과 입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한 명씩 한 명씩 확장해 나가실 것을 그러보면 하늘의 기쁨이 들려오는 듯하다. 하나님께서 속히 당신의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시기를 바라는 마음뿐이다.

단기행사(?)

김 정 민(70동기)

지금은 오후 4시 30분. 화창한 주일 오후입니다. 5부예배를 드린 젊은이들이 돌기 등 앞에서 담소를 나누는가 하면 계단 난간에 앉아 있기도 합니다. 자. 이제 마이크를 들고 그들에게 다가가겠습니다. 왜냐구요? 궁금하시면 따라와 보지요.

"안녕하세요? 단기 사역 가십니까?"

"예."

"열에 계신 형제들요?"

"아니오."

교육관 청년부실로 올라 가고 있습니다. 숨이 차군요. 저기 설치자를 하고 있는 형제들이 있습니다.

"실례합니다. 설치자를 정말 열심히 하시네요. 단기 사역 국내, 국외 중 어디로 가십니까?"

"국내로 갑니다."

지금 문서팀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찾아가 보죠. 네. 모두 배가 고파서 지쳐 있군요. (웃음) 쉬고 있는 틈을 타서 인터뷰를 하겠습니다.

"단기 사역 어디로 가십니까?"

"몽골로 갑니다."

작은 소파에 기대앉아 지친 몸을 잠시 쉬고 있는 청년부 임원들을 만났습니다.

"국외 단기 사역 준비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3월부터 준비했으니까 الآن 5개월 정도 됩니다."

선교팀이 회기가 끝난 것 같습니다. 잠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단기 사역 다녀 오신 경험자 있습니까?"

"네. 작년엔 춘천 동면에 다녀 왔습니다."

옆에 있는 졸업한 선배님께 마이크를 옮겨 보죠.

"단기 사역이 한결 행사같다는 느낌 없습니까?"

"행사라는 형태를 띠고 있지만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저기 한 자매님이 화장실로 들어 가려고 하는군요. 빨리 뛰어가 보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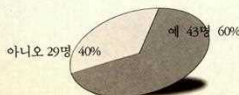
"자매님, 잠깐만요. 사역을 통해 느낀 점 있으세요?"

"어? 이게 뭐예요? 하하하. 정말 녹음하는 거예요? 저는 부모님이 안 믿으시거든요. 사역 다녀온 후에 부모님께 더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인터뷰에 응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합니다. 인터뷰 내용을 이제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인터뷰 인원은 총 72명입니다.

1. 단기 사역 가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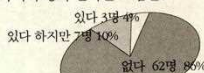
2. 단기 사역 국내로 가십니까, 국외로 가십니까?



3. 사역 준비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 a. 국내 사역 1주 ~ 1개월
- b. 국외 사역 1개월 ~ 6개월

4. 단기 사역이 행사 같다는 느낌은?



위에서 우리는 청년들이 단기 사역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청년의 때에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다는 기쁨과 사역이 매년 계속 됨으로써 알게 될 열매에 대한 기대가 있을 또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같다고 해서 기쁘게, 지체들의 사역에 대한 생각들을 살펴보고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일꾼이 필요한 때입니다.

단기 사역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필요하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 주님이 사역지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고, 체험하고 싶다.
- 처음에는 썩이 안보여 실망스럽기도 하였지만 계속 하다보면 열매가 맺히리라 확신한다.
- 낙도에 가서 사역자와 대화하는 가운데 그 상황이 많이 열려함을 알 수 있었다. 지쳐 있는 목회 사역에 우리가 잠깐이지만 동역함으로써 목회 감당하는 데 힘이 될 것이라고 본다.
- 그러한 행사마저 있다면 우리가 언제 사역을 하겠는가!
- 전도와 선교에 대해 집중적으로 훈련받고, 평소에도 별로 관심이 없던 형제, 자매들이 이 기회에 동참할 수 있어서 좋다. 단기 사역에 대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장기적으로 준비하고 교육되어야 한다.
- 무엇보다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본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오고 또 오는 기도의 정병들

—초보 원목의 기도원 사역기—



김인 직목사, 15교구 지도

한 달간 기도원을 담당하는 초보 원목으로서 교역자 회의에 참석했을 때, 전혀 예상치 못했던 담임 목사님의 질문을 받았다. "기도원에 있으니 뭐가 좋은 것 같습니까?" 나는 영결에, "예, 공기와 밤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회의장에 앉았던 동역자들이 일제히 웃음을 터뜨렸다. 순간 정신이 퍼득 났다. 기도원에 찾아오는 듯 영혼들을 위해 양질의 영의 양식을 제공해야 할 책임감이 어깨에 무겁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건강 문제, 사업 문제, 자녀 문제, 영적인 문제들, 기도원을 찾는 성도들은 여러 문제들을 안고 올라온다. 그러나 참으로 감사한 것은 믿음으로 간구하고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 기도원 사무실에는 이 약속의 말씀이 걸려 있다.

"나 여호와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니라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니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러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시니 내게 기도하면 내가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렘 29:11-13)

적부 금요일 아침에 너무 신경을 쓴 탓인지, 집회를 마치고 속소로 돌아와 자리에 누웠어도 도무지 말

뚱뚱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새벽 2시 30분, 후례를 쟁겨 들고 밖으로 나갔다. 어슴푸레한 달빛 아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부르짖는 성도들의 기도 소리가 온 동산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소나무 아래, 혹은 개인 기도실에, 시멘트 블록 위에, 또는 이불을 뒤집어 쓴 채로 찬양과 간구의 밤은 그들도록 새벽을 재촉하고 있었다.

매주 화요일 오전 11시엔, 그리고 매주 금요일 밤 10시 30분엔 기도원 주차장은 꽉 차기걸 한다. 기도의 정병들이 다시 한 번 더 정금으로 재편되기 위해 입소하는 시간이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대적 상황을 만났지만, 지금은 바로 이 나라와 민족이 우리에게 주신 환경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그네 성읍과 같이 지도자보다 못한 심령에 이르기까지 재를 무릅쓰고 저들의 죄악을 통회하며, 두 손 들고 주께로 나옴으로 부르짖는 기도가기 때문이다. 이제 중원기도원은 6·25와 같은 전쟁이 아닌 IMF로 또 다시 새롭게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부르짖을 기도의 정병을 더 많이 필요로 하고 있다.

교사양성부를 마치고

순전한 마음으로 귀한 사역 감당키 원합니다

박 귀 숙(집사, 14교구)

저를 향한 주님의 계획에 한 걸음을 나아갈 수 있도록 제48기 교사양성부를 수료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3월 7일 제강예배를 시작으로 18주 동안 계속된 교육은 교사를 준비하는 제에게 교사 생활에 대해 구체적인 공부와 되었으며 또한 차를 가졌던 이기적인 생각들을 버릴 줄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교회에 봉사한다는 생각과 더불어 저의 부족한 성경에 대한 지식을 쌓고자 하는 마음으로 교사를 하려고 했습니다. 교사 생활 하는 그 자체로만 목역을 두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종대 목사님의 강의를 통해 교사가 되려는 목적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학생들을 위해서 그 목적이 맞춰져야 한다는 말씀을 주셔서 하로금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천하보다도 귀한 한 영혼을 귀히 여기는 것에 목적을 두어야만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교사가 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또한 학생들에게 있어서 학교에는 일주일에 6일씩 속하지만 교회에는 주일 하루만 출석하기 때문에 그들이 생활 속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하는 교사의 임무는 참으로 막중한 것입니다. 김계철 목사님의 강의를 들었을 때에는 세상 내가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정경삼 목사님께서 꼭 명심하라고 하신 "우리가 모든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체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골 1:28, 29)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부지런한 사람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을 때는 다시 한번 절단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귀한 일정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또한 한 힘을 다해 강의를 하신 여러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또한 매주일 늦은 시간까지 기다려 준 본당과 아이들에게도 감사함을 전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말씀의 은사, 그리고 어린 학생들을 잘 섬길 수 있는 사랑을 허락하여 주소서. 우리에게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고 말로만 가르치지 않고 우리의 인격에서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교사가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겸손한 자가 되게 하시며 우리보다 어리거나 연약할지라도 그들을 귀히 여기게 하시고 기도로서 가장 큰 사랑을 실천하게 하소서.

미국 이민 2세의 한국교회 생활

이 후 찬(전도사, 영예예배부·출판부 부지도)

이후사 전도사



한국 교회와 한국 문화를 더 많이 배울 수 있도록 중원교회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약 110년 전에 개신교 신앙의 선배들이 이곳 한반도에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오랫동안 유교사상에 젖어 있는 한민족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법도를 허락하신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 짧은 글에서 한국 문화와 미국 문화의 장단점의 한 면을 소개하며 저의 간증을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영예예배부의 회중이 어떤 일을 결정할 때에 '한국식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미국식으로 할 것이냐'에 대해 논쟁을 벌이기보다는 '성경적이고 기독교적인가?'라는 생각을 먼저 하기를 바랍니다. 이 둘은 모두 좋은 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인들은 잊어먹을 존경하기를 잘 씁니다. 이것은 매우 기독교적인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문화에는 나이와 상관 없이 다른 사람들의 권한을 존중하며 그것을 받아들이는 열린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도 매우 성경적인데,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한국인으로서 아니면 미국인으로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로서의 신분에 더 큰 비중을 두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전 세계를 하루에 다 다닐 수 있는 세계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들은 방법론에 얽매어서 더 큰 하나님의 일을 놓쳐 버리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 번 진정한 복음으로 돌아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좋은 그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보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이웃의 필요를 채워 주는 일에 우리의 관심을 맞추고 신학 교사 예수 그리스도는 양들의 숫자보다는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 다녔던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지의 물질적, 영적, 감정적인 자원들을 양들을 위해 아끼지 말고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저의 부모님은 내가 좋은 신앙인이 되도록 끊임없이 격려했습니다. 그들은 자녀들에게 본이 되는 신실한 크리스천의 삶을 사시는 분들이십니다. 저의 부모님은 다른 크리스천들보다도 많은 상처를 받았지만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봄으로써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었습니다.

저의 부모님은 신언어학 첫 남 배를 허락해 주시는 자녀를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 만들었고 서원교회로 올리셨습니다. 만약 아들을 선물로 주시면 그 아들을 목사로서 키우겠다고, 딸을 주시면 교회의 반주자로 키우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저의 부모님은 아들과 딸을 낳으셨습니다. 저들은 복사가 되기 위해 신학을 공부하고 있으며 저의 여동생은 교회 반주자로서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저의 어머니는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 약 한 달간 한국을 방문하셨습니다. 저의 사랑하는 어머니를 뵈는 시일에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11월에는 저의 여동생이 미국에서 결혼을 합니다. 저도 이 곳 한국에 나와 있는 동안 정직한 아내를 찾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 한국 교회에서의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잘 섬기고 한국 교회를 잘 배우고 돌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지침들 소식 / 탐방

지침들 소식

영아부
애잔신 통해 사랑 다진 맥주감사절
보리밥과 밀빵과 빨간 수박, 노란 참외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맥주감사절에 밀빵을 때어 서로 먹여 주는 친국 기쁨인 애잔식을 베풀었다. 아기는 신생남에게 신생남은 엄마에게 엄마는 아빠에게 사랑을 먹여 주고 밀빵을 먹여 주는 가운데 영과 육이 든든한 주일을 보냈다.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지 주는 사랑도 컸다. (송혜정 통신원)

유아부
좋은 토양에서 좋은 나무가 자랍니다
지난 주일을 맥주감사주일로 지켰습



니다. 어린이들이 골게 한복을 차려 입고 하나님께서 주신 과일과 야채를 하나씩 전에 바쳤습니다. (임미순 통신원)

유지부
'우리 컷자 컷을까'
맥주감사절을 맞아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는 주일이 되었습니다. '우리 혼자 컷을까?' 하는 질문에 '아니 아냐'라고 대답하는 어린이들의 낭랑한 음성 속에 하나님께서 키워 주시고 길러 주신다는 확신의 감사가 넘쳤습니다. 들빛의 황

금수확은 보지 못했지만 늘여가는 무무게와 커져가는 키를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한편 20, 21일에는 성경학교가 열립니다.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미래의 주인공이 주 안에서 성장하고 자라가는 귀한 시간으로 주님께서 함께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조인혜 통신원)

유년부
믿음도 쏙쏙, 사랑도 쏙쏙
신앙을 쏙쏙 크게 만들 성경학교 계절이 다가 왔어요. 16일부터 1박 2일 동안 진행될 이번 행사는 어린이들에게 여러 가지 재미있는 프로그램과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배우는 시간이 될 거예요. 공동체 훈련으로 친로역경과 어린이 부흥회 때는 촛불예배 및 세속식을, 신나는 미니 올림픽과 짹짹 퀴즈 시간 등이 모두 유년부 어린이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영혼들이 서로 사랑하며 친해질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심도 있게 배우는 매우 뜻 깊은 계기가 될 거라고 믿어요. 축원의 성도님들, 유년부에 많은 어린이들을 보내 주세요. (강현주 통신원)

초등부
야회 신나단 박학이다
'산으로 들로 매미 소리 들으며 놀러 가자. 아침, 오노는 아침 성경학교 날 이구나.' 초등부에서는 16, 17일 1박 2일로 교육관 307호에서 성경학교를 합니다. 그 동안 초등부에 열심히 나왔던 어린이들은 물론 부모님은 우리 교회에 나오시면 어떤 자녀들이 나오지 않고 있는 가정에서는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어린

이들을 보내 주세요. (이미숙 통신원)

소년부
우리들을 신나게 하는 일한 가지
폭죽 쏘는 여름입니다. 교회로 향하는 아이들의 발걸음은 참 가볍습니다. 요즘 우리 친구들에게 신나는 일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이제 곧 있을 성경학교 때입니다. 방학하자마자 놀고 싶을텐데 모두 미뤄두고 성경학교를 기다리니 참기특합니다. 벌써 학교에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친구들과 약속했습니다. 성경학교에 같이 가자구요. 이렇게 기대되는 성경학교는 16일부터 1박 2일로 축원기도원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라는 말씀으로 아이들과 같이 할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를 배워서 기도의 용사들이 되는 소년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가까이에 있는 어린 양들을 소년부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전파 필요한 것을 가득 채우는 성경학교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한연숙 통신원)

중등2부
유일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오는 7월 27-29일 '유일하신 예수님'이라는 주제로 여름수련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예전의 수련회와는 좀 색다르게 진행될거예요. 27일 교회에서 개회예배를 드린 후 과별로 지정된, 장애인 수용시설을 향해 출발합니다. 각 수용시설에서는 과별로 준비된 각기 다른 프로그램(빨래, 청소 등 갖은 일 하기)에 의해 품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교회를 향하

여 달리는 차 속에서 많은 친구들이 다시 만나게 될 예수님께 깊은 감사의 기도를 드리게 될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실시된 2부 프로그램에서는 길과 진리, 그리고 생명이 되신 유일하신 예수님과 깊은 만남을 체험할 거예요. (나성태 통신원)

고등부
여름수련회 조별 모임
8월 3-6일 축원기도원에서 여름수련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자'를 주제로 강사 조문찬, 김동하, 이승학, 사남을 모시고 열립니다. 신구약강의, 조별성경공부, 공동체프로그램, 조별발표, 산상기도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는데 이를 위해 주일 12시 30분에 시작되는 분반모임 시간에도 조별모임을 갖습니다. 고등부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최유홍 통신원)

15교구
제들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루디아전도회 임원들이 얼마전 청소년 복지원 '아들의 집'을 방문하였다. 이들은 기독교 어머니들에 의해 정부 지원 없이 가정방문에서 보호처분 받은 청소년들을 교육하고 있다. 주마다 임원들은 이날 생활품과 과일, 간식을 준비하여 방문했다. 이들을 보고나면 언제나 '남영' 이름 안은 듯 무거운 마음을 금할 길 없고, 산상기로부터 어떻게 도와야 할지 난감하기 짝이 없다. 결혼가정으로 인해 생기는 청소년 탈선 문제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우리 자신들의 한계를 돌아보고 그저 주님께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었다. (한숙경 통신원)

탐방 - 권사회

기도의 어머니

어머니란 이름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하찮은 이름이 아니다. 그 이름은 무수한 고통과 아픔을 통과해야만 얻을 수 있는 승리의 열매이다. 우리는 우리 교회 권사님들께 기꺼이 '어머니'란 위대한 이름을 바친다. 대부분의 조직은 가정을 모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직을 구성할 때 사람을 이 주로 이 모형을 택하는 이유는 아마도 그것이 하나님께 하라하신 가장 이상적인 조직구성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조직에서 군형을 잡는 양측은 아버지와 어머니이다. 교회란 조직도 마찬가지이다. 어머니가 없는 가정은 불안정하듯이 어머니가 없는 교회 또한 생각할 수 없다. 우리 교회의 어머니들의 모범인 권사회는 1975년에 구성되어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한 결과 지금은 4개 지회 772명의 회원으로 발전하였다. 1998년도에는 전명목 회장을 중심으로 내 분의 지회장과 서기와 회계를 맡은 내 분의 임원들이 권사회를 이끌고 있다. 권사회가 하는 일 중에서 가장 큰 일은 역시 기도이다. 이름하여 연속기도라 하는 이 기도는 무한의 시간을 향하여 끝없이 진행되어 모든 권사님들이 주를 떠나 다룰 때나 술을 마시거나 기쁨을 막론하고 단 한 순간의 공백도 없이 완벽하게 이어가는 기도의 행진이다. 이 불씨를 꺼뜨리지 않기 위한 눈물겨운 사역들을 사하며 오늘날 연속기도의



불은 찬연히 타오른다. 하나님이 이 땅의 수명을 하라하시니 한 권사님들이 품은 기도의 불씨는 영원히 꺼지지 않고 타오르리라. 남은 여성도 온전히 기도하는 데 바쳐졌다는 권사님들의 결연한 의지는 우리 교회를 반석 위에 올려놓는 기도의 권원이다. 권사회에서 하는 또 하나의 일은 재정적 후원을 하는 것이다. 교회의 기둥 중 약한 부서를 업선하여 그곳을 돕는다. 사방마다 배부자 혹은 교정전도회 같은 약한 부서를 회원들이 넘쳐나지 않은 주머니들 털어서 낸 정성스런 헌금으로 후원한다. 권사회가 내적으로 치중하는 일은 무엇보다 믿음의 후배들에게 모범을 보이는 권사회의 역할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무한한 절제와 사랑으로 살아왔지만 아직도

부끄럽다고 고백한다. 신앙의 어머니들이 인생을 주님을 위해 살아가고서도 아직도 너무나 부족하다는 이 고백이 참하는 바는 무엇일까? 나이드신 권사님들이 요즘 신세대를 바라보는 시각이 골치만은 앓을 법도 하겠지만 버릇없는 신세대도 사랑으로 바라보다. 오히려 이들에게서 배울 점을 찾으려는 열린 마음을 갖고 있다. 교회의 수장은 어떤 중에서 이분들이 믿음의 어머니로 뵈면 대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

그런데 대부분의 권사님들이 오늘날 신앙의 승려자가 되기까지는 여러 힘든 과정을 극복해 왔다. 특별한 남들이 다 하는 가정일과 남들이 이해하는 교회 일을 병행하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었다. 그러나 남들을 반추한다. 그래서 대부분의 권사님들은 낮에는 교회에서 일을 하고 밤에는 늦도록 집안 일을 하거나 영평을 가리지 않으려는 각고의 노력으로 살아왔다. 지금 젊은 집사님들이 당면한 가정과 교회의 균형형을 잡는 문제에 대해서는 남달리 부지런하게 살 것과 매순간 기도하면서 지혜롭게 문제를 풀어 나갈 것을 충고한다. 21세기를 맞아 교회상에 대해서 권사님들은 우선 복음이 변질되지 않기를 희망한다. 오직 주님만을 믿음의 기초로 삼아 주님이 오직 주인이 되는 교회로 성정하기를 기도한다. 그래서 우리 축원교회가 이 시대의 믿음의 등대 역할을 할 감당해 주기를 바란다고 깊이 당부한다. 삶은 심오하여 한꺼번에 모든 것을 알아낼 수는 없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조금씩 무엇인가 깨닫게 되는데 권사님들만큼 깊은 그 깨달음이 얼마나 깊은 까? 살은 삶의 지혜를 다 들기에 지면이 너무 좁다. 주님의 뜻을 따라 단평을 살아 오다가 이제 일신의 뒤안길로 물러나도록 쉬지 않는 기도요. 인생을 보내고 있는 권사님들의 은발이 아름답다. (글/정영희 지자)

교 회 소 식

● 알림

1. 농어촌 하계전도대 파송예배 / 오는 찬양예배시 파송예배로 드립니다.
2. 여름구원회 / 유년부(16일~17일, 교육관 314호)
· 초등부(16일~17일, 교육관 307호)
· 장년부(16일~17일, 춘천기도관)
· 청년1부(16일~18일, 춘천농협연수원)
· 장년1부(16일~17일, 장동신학교)
· 장년2부(14일~15일, 갈매리홀)
· 사랑부(17일, 교육관 107호)
· 영어예배교육부(17일, 춘천북지관)
3. 장년1부 특강 / 오는 12:30~13:40, 교육관 407호
· 안수회사서 할아버지 사물장 물품수집 /
· 수집물품: 전기 교재 기증할 컴퓨터, 학용품, 장난감, 의류 / 수집기간: 26일(주일)까지
· 수집장소: 청년1부 면회실(교육관 509호)
5. 유아월교 교사 모임 / 전준대는 4년제 대학 졸업자 후 유아교육을 전공한 분을 모집합니다(유경철학관할). · 문의: 본당 지주 유아원(554-7054)
6. 19일(다음 주일) 광고 접수 마감 안내 / 19일(다음 주일) 광고 접수 15일(수) 오전까지 마감합니다. 착오없이시기 바랍니다.
- 모임
1. 장로 회례식(14일) 새벽기도 후, 교육관 109호
2. 안수회사서 회례식(14일) 새벽기도 후, 교육관 109호
3. 전도위원회 월례회 / 오는 15:30, 선교관 405호
4. 봉사위원회 월례회 / 오는 15:30, 사무국 회의실
5. 간사위원회 모임 / 오는 15:00, 사무국
6. 간사위원회 월례회 / 오는 15:30, 선교관 404호
7. 주일학교회 월례회 / 매주일 15:00-16:30, 사랑부 예배실
8. 성일면교회 목회기도회 / 16일(목) 새벽기도 후, 성일면교회
9. 성일면교회 월례회 / 오는 15:00, 잔반실
10. 2교구 협의회 / 14일(목) 18:30, 잔반실
11. 교육연구소 월례회 / 15일(수) 11:00에 후, 교육연구소
12. 권사회 제2기 월례회 / 15일(수) 1부 예배 후, 사랑부

● 남녀전도회

1. 바 울 1 / 18일(토) 19:00, 다보경
2. 바 울 4 / 오날 구교모임 후, 교육관 202호
3. 바 울 6 / 오날 15:00, 복지관 지하층
4. 바 울 8 / 18일(토) 18:30, 박순근 집사대(457-9027)
5. 바 울 9 / 18일(토) 18:00, 의정부 한성수울
(김영관 장로대, 0351-879-0211)
6. 바 울 10 / 18일(토) 15:00, 장로대 19번 버스정장
7. 바 울 14 / 오날 구교모임 후, 교육관 201호
8. 바 울 16 / 19일(다음 주일) 구교모임 후, 임나루헬름
9. 베드로 2 / 오날 구교모임 후, 학원전도회실
10. 베드로 8 / 18일(토) 18:30, 유정성 집사대(446-5687)
11. 베드로 9 / 19일(다음 주일) 구교모임 후, 구교모임장소
12. 베드로 12 / 19일(다음 주일) 15:00, 교육관 409호
13. 베드로 16 / 오날 구교모임 후, 임나루헬름
14. 오 한 4 / 17일(금) 09:30, 철원(민통선)
15. 오 한 5 / 18일(토) 15:00, 개포서사 열회(평택동로)
16. 오 한 14 / 오날 19:00, 정은성 집사대(642-9645)
17. 한 나 1 / 오날 구교모임 후, 교육관 407호
18. 한 나 2 / 오날 구교모임 후, 구교모임장소
19. 한 나 3 / 오날 구교모임 후, 교육관 304호
20. 한 나 4 / 오날 구교모임 후, 구교모임장소
21. 한 나 5 / 오날 구교모임 후, 복지관 지하2층
22. 한 나 6 / 오날 구교모임 후, 복지관 지하층
23. 한 나 7 / 오날 구교모임 후, 구교모임장소
24. 한 나 9 / 오날 구교모임 후, 교육관 41호
25. 한 나 10 / 오날 구교모임 후, 본당 이용 수납개 앞
26. 한 나 11 / 오날 구교모임 후, 구교모임장소
27. 한 나 12 / 오날 구교모임 후, 교육관 212호
28. 한 나 14 / 오날 구교모임 후, 만나홀
29. 한 나 16 / 오날 구교모임 후, 만나홀
30. 한 나 15 / 오날 구교모임 후, 베다니홀
31. 한 나 17 / 오날 구교모임 후, 교육관 307호
32. 에스더 1 / 19일(다음 주일) 구교모임 후, 교육관 407호
33. 에스더 4 / 14일(목) 09:50, 본당 생활(한기원오)
34. 에스더 6 / 19일(다음 주일) 구교모임 후, 복지관 지하층
35. 에스더 14 / 오날 구교모임 후, 교육관 201호

36. 루디아 1 / 13일(월) 10:30, 사랑부실
37. 루디아 9 / 14일(월) 11:00, 성로 면회
38. 루디아 15 / 오날 구교모임 후, 베다니홀
39. 루디아 16 / 오날 구교모임 후, 구교모임장소 열 108호
40. 루디아 17 / 14일(월) 11:00, 최희숙 집사대(715-6394)
41. 마리아 1 / 14일(월) 10:30, 사랑부실
42. 마리아 2 / 14일(월) 10:30, 김현경 집사대(569-7038)
43. 마리아 3 / 14일(월) 11:00, 사랑부 교사실
44. 마리아 5 / 14일(월) 10:30, 신봉자장부실
45. 마리아 6 / 14일(월) 11:00, 주매연 집사대(449-3106)
46. 마리아 7 / 14일(월) 10:30, 유아부실
47. 마리아 8 / 15일(수) 1부 예배 후, 교육관 109호
48. 마리아 10 / 14일(월) 10:30, 박순근 집사대(400-0154)
49. 마리아 14 / 오날 1부 예배 후, 만나홀 면회
50. 마리아 15 / 14일(월) 10:00, 노봉근 집사대(888-4144)
- 결혼
1. 김용준(김종구 장로, 최희경 집사의 아들, 제19교구과 전지현(전원)남 성사, 박순근 권사하의 딸, 제3교구) / 17일(금) 11:00 잔치예배
2. 박정진(박기도 성도, 유정성 집사의 아들, 제19교구과 서인영(서동주)장로, 문경숙 집사의 딸, 제3교구) / 17일(금) 13:00 잔치예배
3. 허동철(이혁주 목사, 김장자 사모의 아들)과 장영영(장영희 성도, 김장자 집사의 딸, 제3교구) / 17일(금) 15:00 잔치예배
- 직장 전회변경
1. 박창근 집사 / 558-9118

● 유년부 교사 모집

청년부원이나 대학부원 중 매 주일 10:30-12:30에 신실성 관미 및 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성도들을 유년부의 보조 및 임시 교사로서 모집하고자 합니다. 이로서 신장교육과 아동 교육에 관심있는 청년 성도들이 많은 호응과 뜻있는 봉사정신을 기대합니다.
· 문의: 유년부 교사(교육관 304호, 교한 441번)

금주의 기도 제목

- ① 김창민 원로목사와 김성관 위임목사께서 강함을 주시며 지체와 권능과 육신의 강건함을 주시며 모든 교역자들과 당회원들이 팔기전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소서.
- ② 농어촌전도대의 단기신도들이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주어진 일을 아름답게 이루어 그 사역을 붙들어서 주서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게 하시고, 충현의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거하며 그 복음을 따라 행하며 전하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 ③ 각 예배순서를 맡은 모든 일꾼들이 사랑과 평강으로 충만하여 성령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소서.
- ④ 모든 성도들과 기관과 교회에 전도와 선교의 열기가 활활 타오르게 하셔서 많은 젊은이들이 전도와 선교의 대열에 열심히 참여하게 하소서.
- ⑤ 박정진교회와 금요교회와 주일 5부예배가 계속해서 힘있게 일어서게 하소서.
- ⑥ 교회학교 여름성경학교 및 수련회를 잘 준비하여 각 부서가 은혜롭게 하소서.
- ⑦ 나라가 어려움에 이매에 힘들고 고부스러워 방황하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게 하시며 충현의 모든 성도들이 주일을 성수하며 생활 가운데서 빛과 소망이 되게 하시고 몸이 아닌 성도들을 믿음중에 간간히 하셔서 치료하여 주소서.

- 원로목사 김창민 위임목사 김성관
- 부목사 이준교 김희수 이종대 박경환 김동석 김철우 전형훈 김기철 이승수 정갑진 정형민 조준환 조철수 김동하 차병준 김태현 김진식 권상현 서광진 이승환 정해성
- 협동목사 윤영민 박형용 노봉근
- 선교사 이준교 안석열 김영애
- 강도사 이준경 박노철
- 원로전도사 이두란
- 여전도사 최순옥 정연희 현정남 정복진 장정자 박배주 김장자 김옥순 최희배 손미희 송향자 신종관 유은숙 오창호 오인숙 김복순 한영준 박종화 박희자 김명숙 김복순 최영란
- 교정전도사 박양림
- 교육전도사 박인기 엄현일 한승일 이종환 김영기 송원식 장광호 조재민 최진우 허용구 이종환
- 선교전도사 정은희 박태양
- 청소년전도사 유봉생 김형선 이기성 김철영 고은빈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1176	조준임	2	한나	이윤자(8)	1185	윤경아	19	예배다부	김영선(19)	1194	박혜용	1	베드로	
1177	지병장	2	청년2부	지순애(17)	1186	나준배	19	청년1부	이갑재(15)	1195	권태원	1	청년1부	
1178	박호정	5	루디아	하두연(5)	1187	지연심	19	청년1부	고경자(4)	1196	조복은	1	중동	
1179	장정녀	5	베드로	공석두(6)	1188	김정심	19	청년2부		1197	김길식	1	루디아	
1180	이성순	5	루디아	공석두(6)	1189	최귀화	4	청년1부	박유석(8)	1198	한진섭	1	청년1부	
1181	이명남	8	청년2부	이윤자(8)	1190	조창배	19	청년1부	정수진(19)	1199	박상수	1	요한1	
1182	유민정	19	청년2부	기현실(19)	1191	기미형	19	청년1부		1200	김진희	4	마리아	
1183	김강복	19	예배다부		1192	백은영	19	청년1부	고준석(6)	1201	박은순	17	한나	
1184	김강희	19	예배다부		1193	이분선	4	소망		1202	고옥영	17	장년부	

※충현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3호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반 인사님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권사님의 건강은 어떠하신지요? 그리고 새가족부의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받으며 기쁘게 생활하고 있었지요?
저는 4월 30일 12시 30분 비행기로 떠나 오주 2시 30분에 장춘에 도착하여 두 딸과 3일간 즐겁게 지내고 5월 3일에 연길에 도착하여 사랑하는 집사구들과 만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받으며 날마다 기쁘게 살고 있습니다. 충현교회에서 주일마다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경배하는 일은 늘 앞에 생생하며 더욱이 새가족부 목사님의 설득있는 설교 말씀이 얼마나 좋았는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지금 여권교회를 나가고 있으며 김현하(새가족부에 교육받음)도 저

와 함께 교회에 나가고 있습니다. 요즘 남편은 흥분탕에 가서 농장 관리를 맡

(중국 교회에서 온 편지)

세례받던 날의 감격
있을 수 없어요



아 하고 있어 집에 안계시고 아들과 며느리는 아직 교회는 나가지 않지만 제

가 교회 다니는 것을 환영하며 식사 때마다 저의 교회를 가리키고 관심 있어 하는 것을 보다 멀지 않아 그들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기독교의 성도가 될 것입니다.

인사님, 서로 먼 곳에 있지만 마음만은 멀리 하지 말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성도가 되어 서로서도 행복을 축복하면서 사랑을 붙잡고 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신과 성도님께도 인부를 전하여 주세요. 건강하신지요? 세례받던 날 축복의 간증을 잊을 수 없으며 날마다 주 안에서 기쁘게 살고 있으며 다시 만날 기회를 기대하고 있다고요.
오늘은 여기에서 끝낼게요. 충현교회의 번장을 빌어서 안녕히 계세요.
1998. 6. 8
전옥련 성도 올림

7월 19일 예배 전 찬양곡 및 연주자

◆ 2부 · 4부예배

소프라노 김희숙 집사

(찬양곡목)

- 구름 같은 이 세상(찬 532장)
- 오 신실하신 주(찬 447장)
- 여호와야 나의 목자시니(김영준)

◆ 3부 · 5부예배

청년1부(중창단(리더 / 이미리)

(찬양곡목)

- 지비하신 예수여(찬 450장)
- 갈보리산 위에(찬 135장)
- 평화의 기도